

중2-1
국어
미래엔(민)

2027 중2-1 국어 미래엔(민) 3(1) 음운 체계와 문자 체계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음운 체계랑 한글 창제 원리 부분을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표도 다 외워야 하는 것 같고 내용도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음운 체계가 처음엔 낯설어서 그럴지, 무작정 외우려 하지 말고 원리만 파악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일단 핵심부터 짚어 보자.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야.** '물'과 '불'이 초성 'ㄹ'과 'ㅈ' 자음 하나 차이로 뜻이 완전히 달라지지? 이것이 바로 **음운의 변별적 기능**이야.



아,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요. 그건 알겠는데 자음 체계표랑 모음 체계표는 어떻게 다 외워야 해요? 기준이 여러 개라 너무 헷갈려요.

자음은 공기가 입안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방해받느냐가 핵심이야. '소리 나는 위치(입술, 잇몸, 입천장, 목젢 등)'와 '소리 내는 방법(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등)'을 기준으로 표를 이해하면 돼. **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에 따라 **단모음 10개를 분류**하는 규칙을 기억해야 한다. 예상 출제 유형으로는 체계표를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가 가장 잘 나와. 예를 들어 자음이나 단모음 체계표를 제시하고 특정 음운의 특징을 묻거나, 구체적인 단어를 주고 그 안에 쓰인 모음이 전설인지 후설인지, 원순인지 평순인지 꼼꼼하게 분석하라는 유형이 단골 문제지.



그렇군요. 그럼 뒤에 나오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는요? 거기도 낯선 용어투성이라 이해가 안 돼요.

훈민정음은 사물의 모양을 본떴다는 '**상형의 원리**'부터 확실히 정리해야 해. 자음 기본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 각각 어떤 발음 기관을 본떴는지 짚지어 알아두고, 거기에 소리가 세지면서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파악해야 해.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뜬 기본자에 '**합성의 원리**'가 쓰였다는 점이 중요하단다.





아, 무조건 표를 백지상태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와 기준이 적용됐는지 구체적인 예시 단어에 직접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하네요. 이제 뭘 공부해야 할지 조금 감이 잡혀요!

바로 그거야! 핵심 개념을 정확히 잡고 **예시 단어들에 배운 원리를 직접 적용해 보면서 기출문제를 풀어 봐**. 생각보다 훨씬 쉽게 풀릴 거야. 파이팅!



중2-1
국어
미래엔(민)

2027 중2-1 국어 미래엔(민) 3(1) 음운 체계와 문자 체계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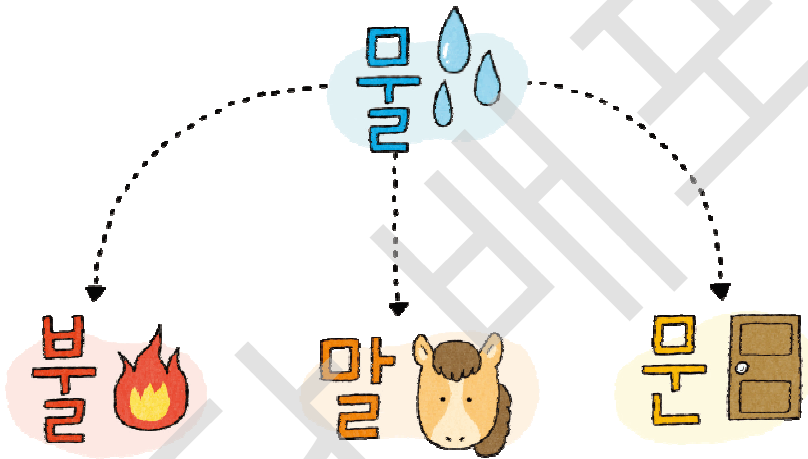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분석

1. 국어의 음운 체계

☞ 음운이란 무엇일까?

[탐구 1]: 단어 ‘물’과 아래 단어들을 짝 지어 발음해 보고,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까닭을 생각해 보자. (‘물’과 ‘불’은 ‘ㄹ’과 ‘ㅂ’의 소리 차이로, ‘물’과 ‘말’은 ‘ㅌ’와 ‘ㅍ’의 소리 차이로, ‘물’과 ‘문’은 ‘ㄹ’과 ‘ㄴ’의 소리 차이로 뜻이 달라진다. “ㄹ”, “ㅂ”, “ㅌ”, “ㅍ”, “ㄹ”, “ㄴ”은 모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소리의 단위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불’은 자음 하나의 차이로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과 ‘말’의 의미 차이는 모음 ‘ㅌ’와 ‘ㅍ’에서 비롯된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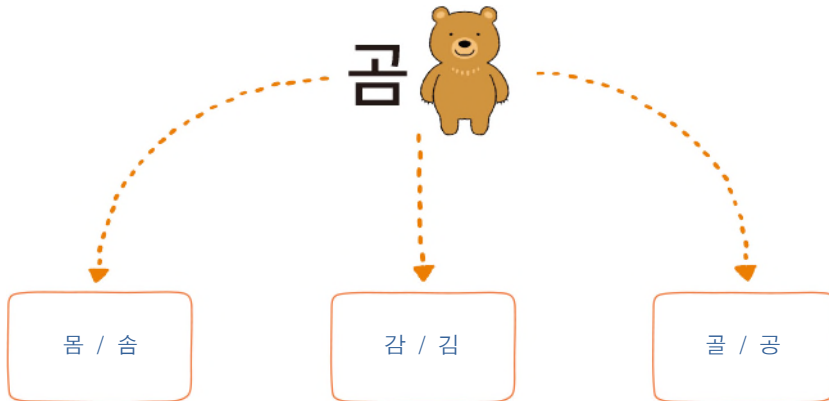


[‘물’과 ‘불’은 ‘ㅌ’와 ‘ㄹ’ 소리가 공통되지만 ‘ㄹ’과 ‘ㅂ’ 소리가 달라 그 뜻이 구별돼요. ‘물’과 ‘말’은 ‘ㅌ’와 ‘ㅍ’의 차이 때문에, ‘물’과 ‘문’은 ‘ㄹ’과 ‘ㄴ’의 차이 때문에 뜻이 구별돼요.] ([]: 한 개의 음운 차이로 뜻이 달라지는 단어의 쌍을 고르는 문제에서 ‘오리-고리’와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초성, 중성, 종성이 각각 한 개씩 다른 단어를 고르는 문제에서 ‘불-말-문’과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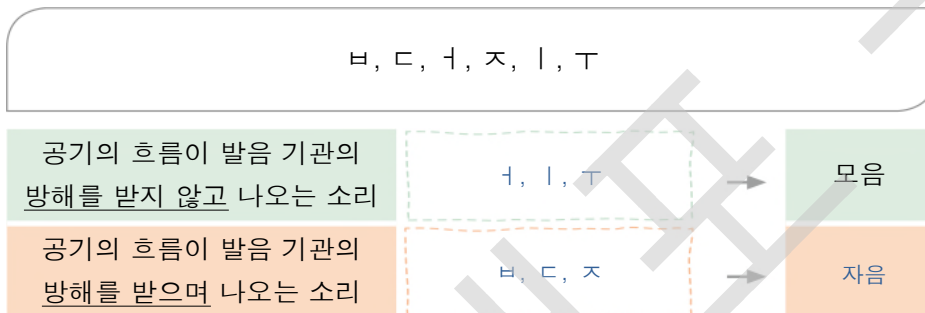
‘ㄹ’과 ‘ㅂ’, ‘ㅌ’와 ‘ㅍ’, ‘ㄹ’과 ‘ㄴ’처럼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음운의 개념. 개념을 묻는 문제에서 ‘음운이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고, 문자란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각적인 기호 체계이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를 음운(音韻)(소리 음, 운 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음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하여 그 관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 음운 체계예요.

국어의 음운에는 대표적으로 모음과 자음이 있어요. 모음은 ‘ㅏ’, ‘ㅑ’처럼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모음의 개념.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이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고, 자음은 ‘ㄹ’, ‘ㅂ’, ‘ㄷ’, ‘ㄴ’처럼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받으며 나오는 소리(자음의 개념. ‘자음인 ‘ㄹ’과 ‘ㅂ’은 공기의 흐름에 방해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다.’와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예요.

[확인 1-1] 단어 ‘곰’의 음운을 하나씩 바꾸어 가며 뜻이 다른 단어들을 만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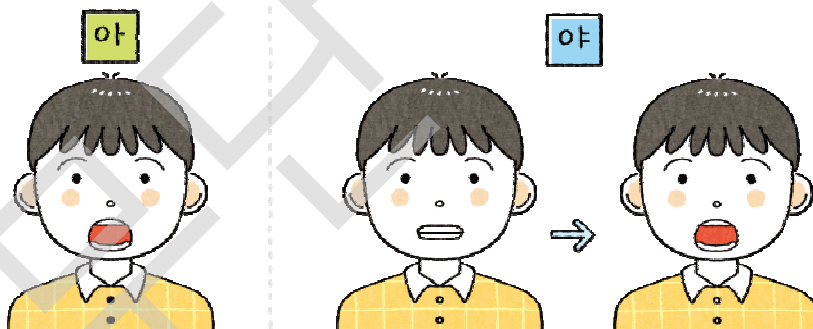


[확인 1-2] 다음 음운을 소리 나는 방식이 같은 것끼리 나누어 보자.



☞ 국어의 모음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탐구 2]: ‘아’와 ‘야’를 발음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아’를 발음할 때에는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데, ‘야’는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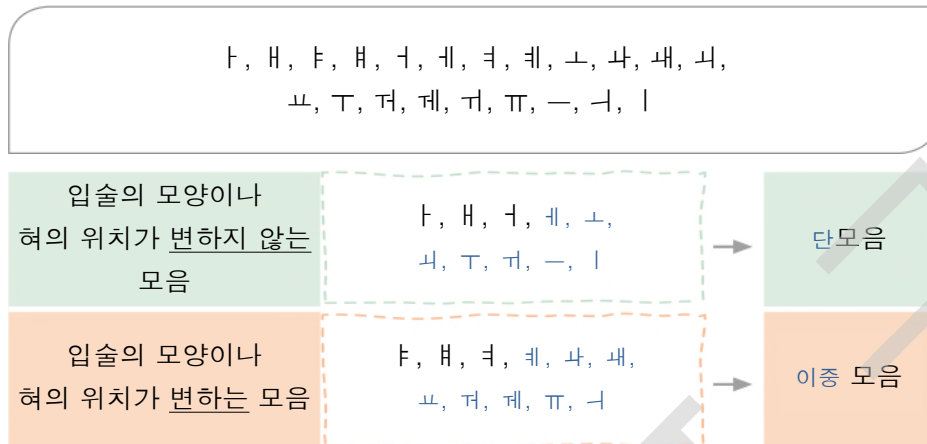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지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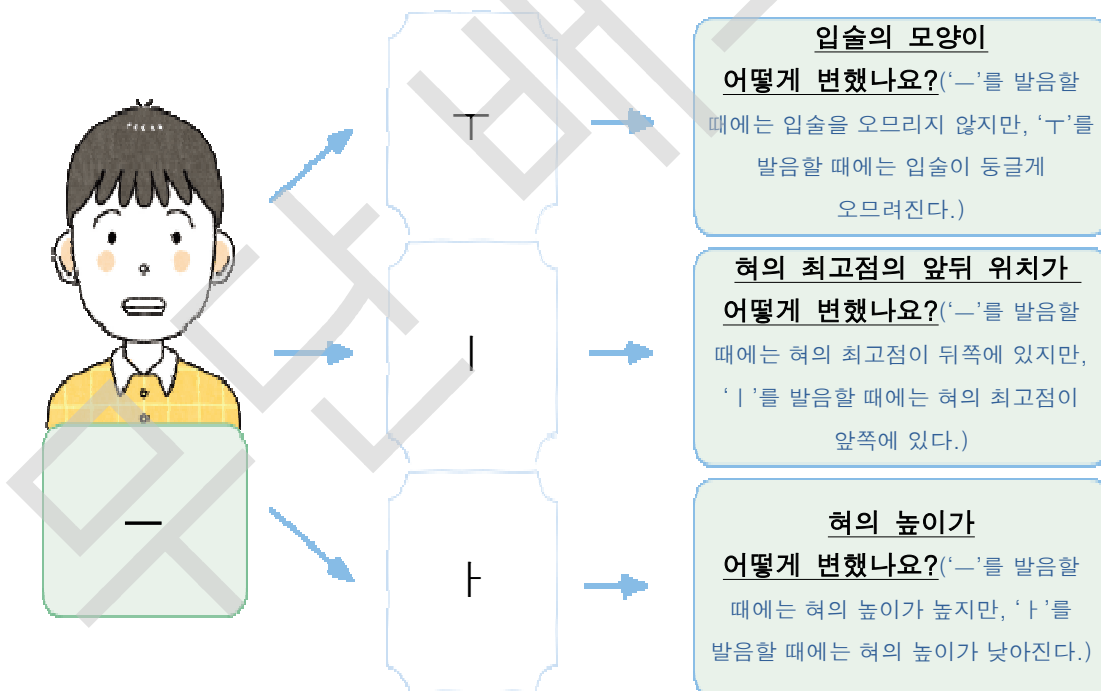
모음 가운데 ‘ㅏ’, ‘ㅑ’와 같이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단모음의 개념. ‘국어의 단모음은 총 10개이며, 발음 도중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단(單)(홀 단)모음이라고 해요. 반면 ‘ㅓ’, ‘ㅕ’처럼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이중 모음의 개념. ‘국어의 이중 모음은 총 11개이며, 발음 도중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모음이 사용되지 않은 단어를 고르는 문제에서 ‘사과, 시계, 야구, 의자’와 같은 이중 모음이

사용된 단어 예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은 **이중(二重)**(두 이, 거듭 중) 모음이라고 해요. 국어에는 10개의 단모음과 11개의 이중 모음이 있어요.

[확인 2] 다음 모습을 발음해 보고,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으로 나누어 보자.



[탐구 3]: ‘一’를 발음한 다음 ‘ㄷ’, ‘ㄴ’, ‘ㄹ’를 발음해 보고, 질문에 답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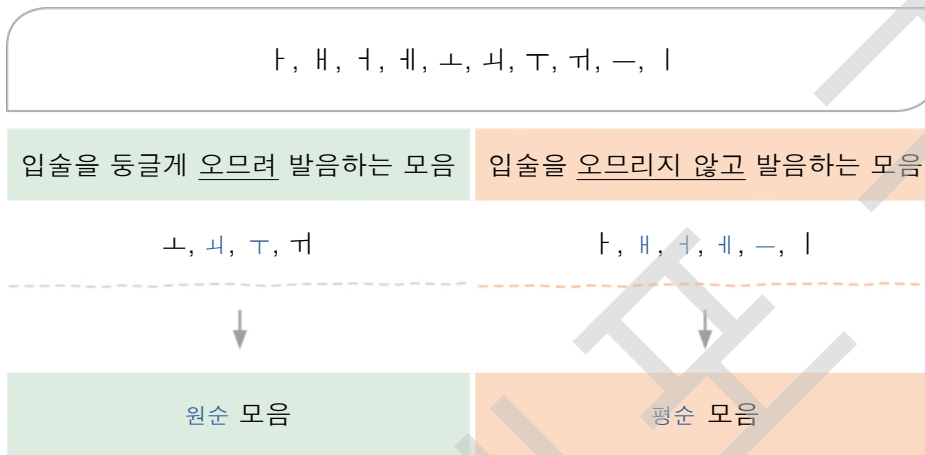
단모음은 입술의 모양과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 혀의 높이(단모음의 분류 기준. 단모음의 분류 기준을 <보기>로 주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는 문제에서 ‘입술의 모양,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 혀의 높이’ 등이 옳은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각각의 기준에 따라 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정리해 볼까요?

* **입술의 모양: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이 사용된 단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구두’와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 우주, 구조’와 같은 예시를 주고 공통점을 물을 때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내는 원순 모음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모음은 혀의 높낮이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와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단모음은 입술의 모양에 따라 ‘ㅜ’나 ‘ㅡ’처럼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원순(圓脣)**(둥글 원, 입술 순) 모음과 ‘ㅣ’나 ‘ㅓ’처럼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평순(平脣)**(평평할 평, 입술 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 단모음의 분류 기준 ①: 입술의 모양

[확인 3-1] 다음 단모음을 발음해 보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 나누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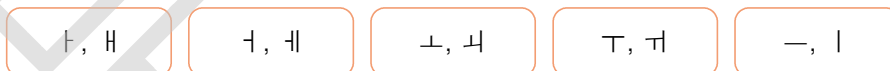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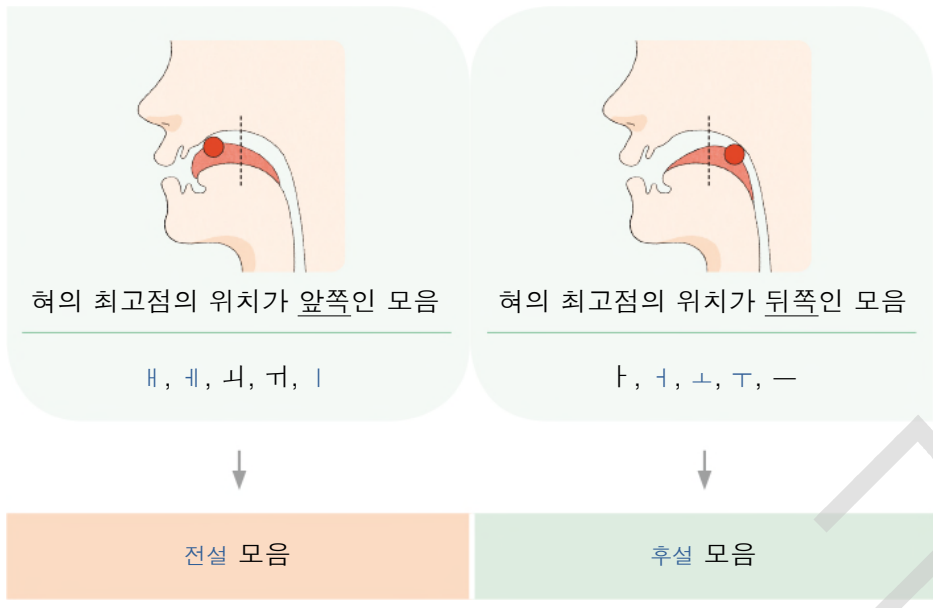
*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전설 모음이 쓰인 단어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호두알’과 같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모음 10개를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와 같이 나누고, 그 기준을 묻는 문제에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가 뒤쪽에 있는가’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가장 높은 부분, 즉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의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ㅣ’나 ‘ㅕ’, ‘ㅓ’처럼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모음을 **전설(前舌)**(앞 전, 혀 설) 모음, ‘ㅡ’나 ‘ㅓ’처럼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모음을 **후설(後舌)**(뒤 후, 혀 설) 모음이라고 해요.

▶ 단모음의 분류 기준 ②: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

[확인 3-2] 짝 지어진 모음의 발음을 비교해 보고,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에 따라 나누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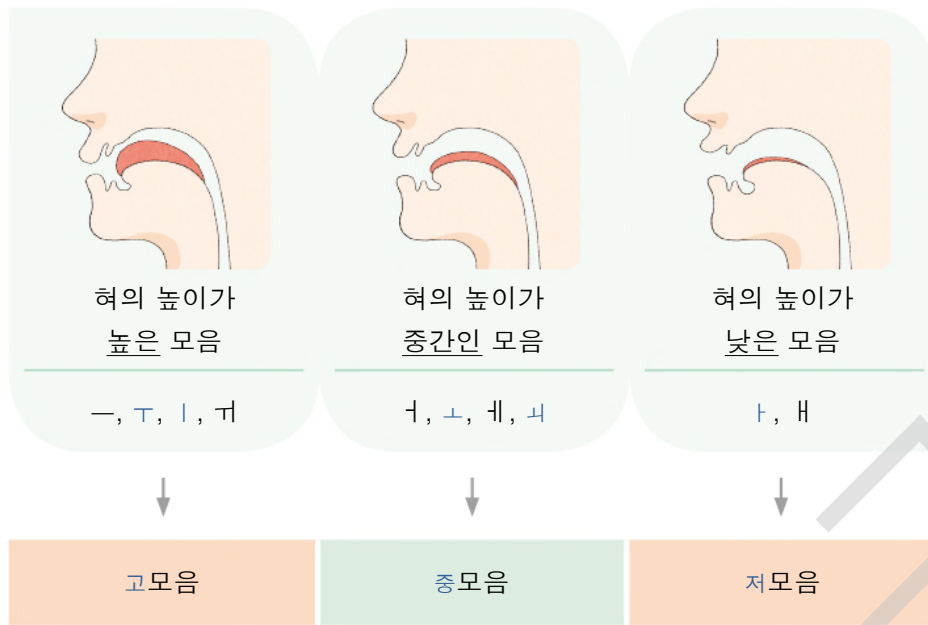
* **혀의 높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개-게'의 단어를 발음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을 묻는 문제에서 '개'의 'ㅐ'는 '게'의 'ㅔ'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 혀의 위치를 낮추어서 발음해야 한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종류의 모음이 쓰인 단어끼리 묶인 것을 묻는 문제에서 '비 - 숲'과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높이에 따라 혀의 높이가 높은 **고(高)**(높을 고)모음, 혀의 높이가 중간인 **[중(中)]**(가운데 중)모음 **[ㅗ, ㅛ]**: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중간인 모음을 고르는 문제에서 '포도'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혀의 높이가 낮은 **저(低)**(낮을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ㅡ'를 발음한 상태로 천천히 혀를 내려 보세요. 자연스럽게 'ㅓ'와 'ㅕ'로 소리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ㅡ'는 고모음, 'ㅓ'는 중모음, 'ㅕ'는 저모음입니다.

▶ 단모음의 분류 기준 ③: 혀의 높이

[확인 3-3] 짝 지어진 모음의 발음을 비교해 보고, 혀의 높이에 따라 나누어 보자.

ㅡ, ㅓ, ㅕ	ㅗ, ㅛ	ㅏ, ㅑ, ㅓ	ㅕ, ㅓ
---------	------	---------	------



🔊 국어의 자음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방해받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탐구 4]: 다음 단어를 발음해 보고,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과자)



* 소리 나는 위치 (자음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나뉜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뿌리’의 ‘ㅍ’, ‘희망’의 ‘ㅁ’, ‘포도’의 ‘ㅍ’처럼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입술소리라고 하고, ‘포도’의 ‘ㄷ’처럼 혀끝과 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잇몸소리라고 해요. ‘과자’의 ‘ㅈ’을 발음할 때에는 ‘ㄷ’을 발음할 때보다 혀가 뒤쪽으로 가 입천장에 닿아요. 이때 혀가 닿는 딱딱한 입천장을 ‘센입천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센입천장소리라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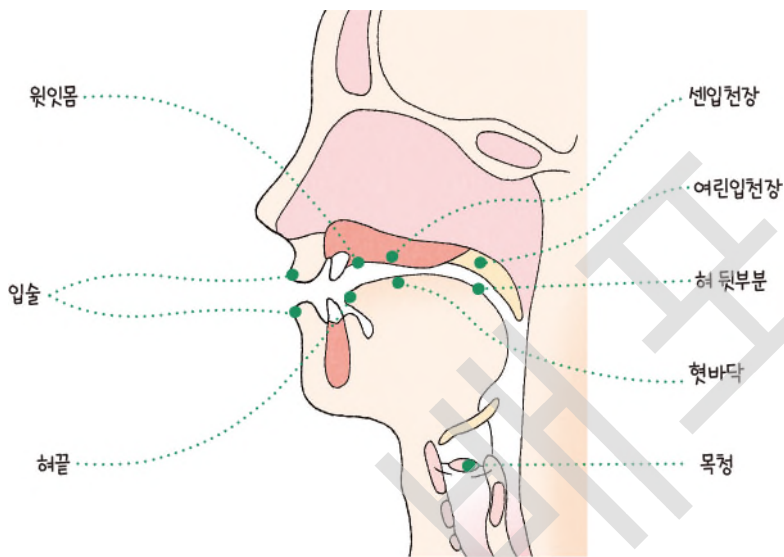
‘과자’의 ‘ㄱ’을 발음할 때 혀가 목구멍 근처의 입천장을 막는 게 느껴지나요? 이때의 입천장은 센입천장보

다 부드러워서 ‘여린입천장’이라고 하고,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여린입천장소리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희망’의 ‘ㅎ’은 입안에서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목청소리라고 해요.

▶ 자음의 분류 기준 ①: 소리 나는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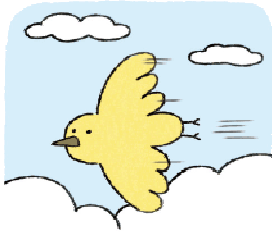
[확인 4] 다음 자음을 발음해 보고, 소리 나는 위치를 찾아 빈칸을 채워 보자.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ㆁ, ㅍ,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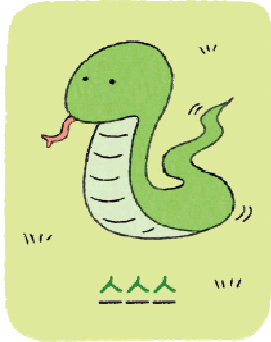


두 입술 사이	ㅁ, ㅂ, ㅃ, ㅍ	→	입술소리
혀끝과 윗잇몸 사이	ㄴ, ㄷ, ㄸ, ㄹ ㅅ, ㅆ, ㆁ	→	잇몸소리
혓바닥과 센입천장 사이	ㅈ, ㅉ, ㅊ	→	센입천장소리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	ㄱ, ㄲ, ㅇ, ㅋ	→	여린입천장소리
목청 사이	ㅎ	→	목청소리

[탐구 5]: 다음 자음을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푸드드'의 'ㅍ, ㄷ'을 발음할 때에는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막혔다가 터뜨리면서 흘러나오고, '스스스'의 'ㅅ'을 발음할 때에는 혀가 잇몸에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통로를 좁히고 그 사이로 공기가 흘러나온다. '치'의 'ㅈ'을 발음할 때에는 공기의 흐름이 막혔다가 틈이 조금 열리고 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로 흘러나온다.)



푸드드



스스스



치

* 소리 내는 방법

‘푸드드’의 ‘ㅍ’, ‘ㄷ’처럼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를 [**파열음(破裂音)**](깨뜨릴 파, 찢을 열, 소리 음),]([[: ‘ㄱ, ㄷ, ㅂ’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에서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순간적으로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스스스’의 ‘ㅅ’처럼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를 [**마찰음(摩擦音)**](갈 마, 비빌 찰, 소리 음),]([[: 각 자음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ㅅ: 혀끝과 잇몸 사이를 좁혀 그 틈으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 낸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의 ‘ㅈ’처럼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조금 열고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를 [**파찰음(破擦音)**](깨뜨릴 파, 비빌 찰, 소리 음)]([[: 각 자음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ㅈ: 혀바닥을 센입천장에 대어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떼면서 마찰을 일으켜 소리 낸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라고 해요.



마음



빨래

한편, ‘마음’의 ‘ㅁ’처럼 발음할 때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비음(鼻音)**](코 비, 소리 음),](자음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ㅁ, ㄴ, ㅇ과 같은 비음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안울림소리이다.”와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빨래의 ‘ㄹ’처럼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 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유음(流音)**(흐를 유, 소리 음)이라고 해요.

▶ 자음의 분류 기준 ②: 소리 내는 방법

[확인 5-1] 다음 자음을 발음해 보고, 소리 내는 방법을 알맞게 연결해 보자.

ㅈ, ㅉ, 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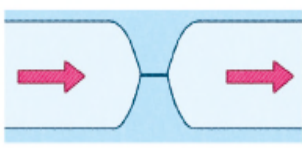
ㅅ, ㅆ, ㅅ̥

ㅂ, ㅃ, ㅍ, ㅌ, ㅍ̥, ㅌ̥
ㄱ, ㅋ, ㅋ̥

(1) •
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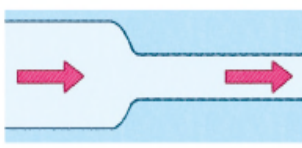
(2) •
ㄴ̥ •

(3) •
ㅍ̥ •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파열음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마찰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조금 열고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파찰음

[확인 5-2] 다음 자음을 발음해 보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나누어 보자.

ㄴ, ㄹ, ㅁ, ㅇ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 보내면서 내는 소리

ㄴ, ㅁ, 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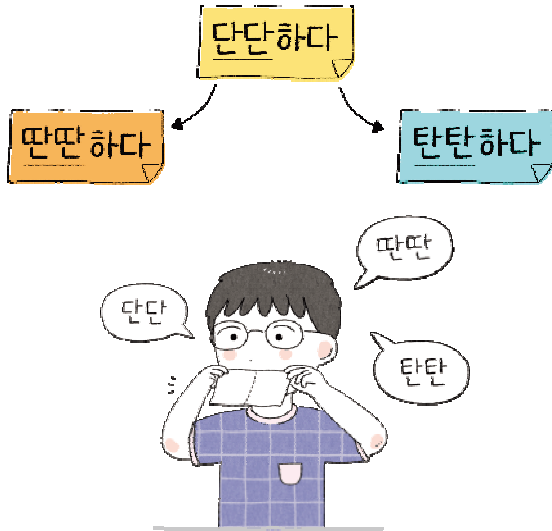
ㄹ

비음

유음

[탐구 6]: 다음 단어의 밑줄 친 부분을 발음해 보고, ‘ㄷ’, ‘ㅌ’, ‘ㅌ̥’을 발음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ㅌ̥’은 ‘ㄷ’을 발음할 때보다 성대 주위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공기를 적게 내보낸다. ‘ㅌ̥’은 ‘ㄷ’을 발음할 때보다

성대 주위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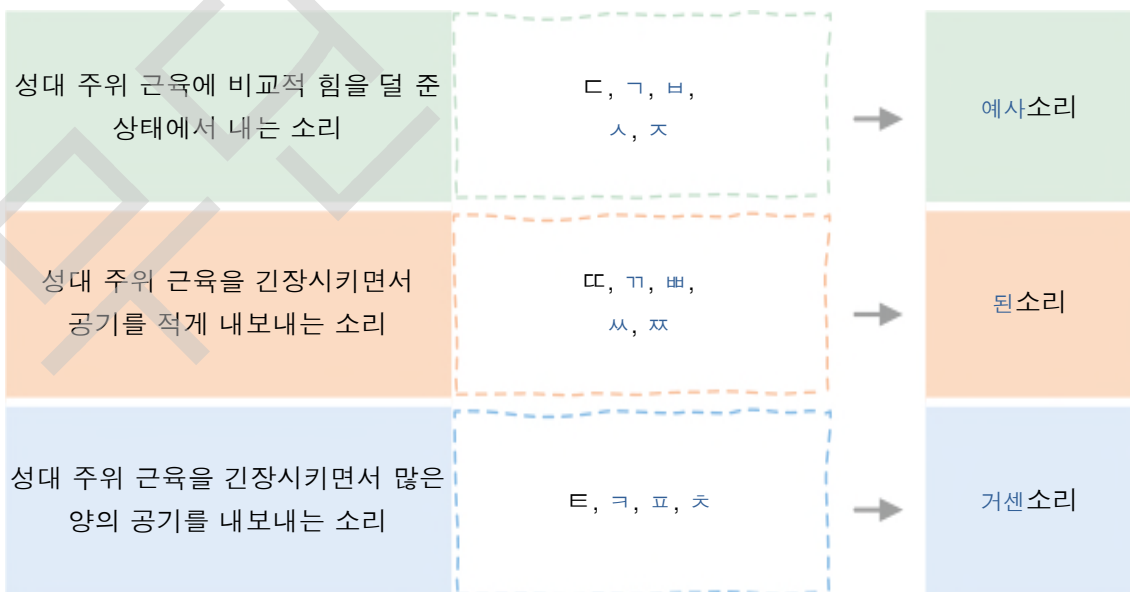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다시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단단’의 ‘ㄷ’처럼 성대 주위 근육에 비교적 힘을 덜 준 상태에서 내는 소리를 예사소리, ‘똥똥’의 ‘ㄸ’처럼 성대 주위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공기를 적게 내보내는 소리를 된소리, ‘탄탄’의 ‘ㅌ’처럼 성대 주위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를 거센소리라고 해요.】([]: 각 자음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ㄲ’: 두 입술을 다물어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릴 때, 성대 주위 근육을 긴장시키며 공기를 적게 내보내 소리 낸다.’와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음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눌 수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소리의 세기에 따른 자음 분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확인 6] 짝 지어진 자음을 발음해 보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누어 보자.

ㄷ, ㄸ, ㅌ	ㄱ, ㄲ, ㅋ	ㅂ, ㅃ, ㅍ	ㅅ, ㅆ	ㅈ, ㅉ, ㅊ
---------	---------	---------	------	---------



지문 분석

2. 국어의 문자 체계

사람들 사이에 약속된 기호가 없었을 때에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웠어요. 또 소리는 말하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정보를 오래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도 어려웠지요. 그래서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각적인 기호 체계인 '문자'가 만들어졌어요.**(문자의 개념을 묻는 문제에서 '문자란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각적인 기호 체계이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문자가 만들어진 배경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탐구 1]: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자. (정보를 말로만 전달하다 보니 오래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한자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많아 우리말을 쓰고 읽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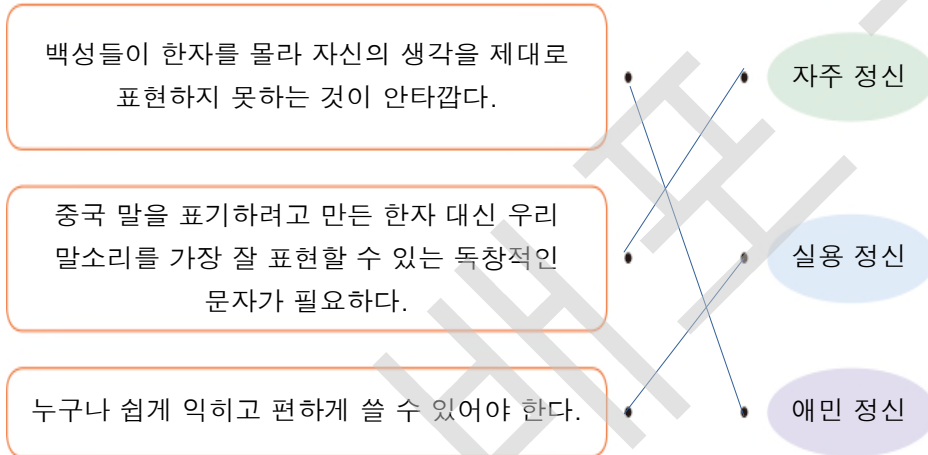


우리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 말소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체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자를 빌려 사용하기도 했는데, 한자는 우리말에 맞지 않는 문자 체계인 데다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불편했어요.

세종 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중국 말을 표기하려고 만든 한자 대신 우리 말소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또 누구나 쉽게 익히고 편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답니다. 이러한 창제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세종 대왕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訓民正音)**(가르칠 훈, 백성 민, 바른 정, 소리 음)을 창제하였어요.

▶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과 창제 정신

[확인 1]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까닭과 창제 정신을 알맞게 연결해 보자.(어리석은 백성들이 안타까워 문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보기>로 주고, <보기>에서 알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묻는 문제에서 ‘애민 정신’이 옳은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탐구 2]: 세종 대왕이 한글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를 만든 원리를 생각해 보자.(자음의 기본자는 입, 목구멍 등 각 자음이 발음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 사람, 땅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자음의 기본자



◦ 모음의 기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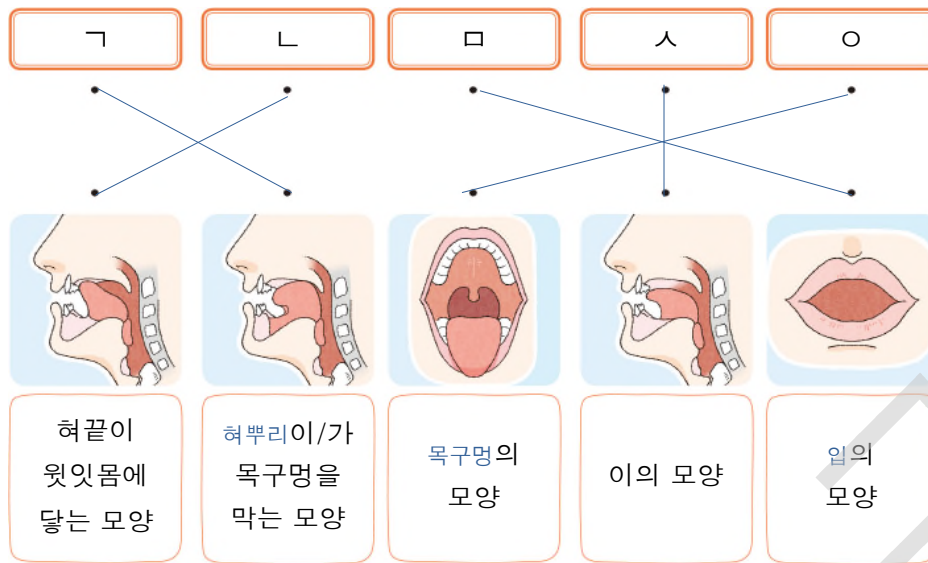
세종 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방식은 매우 과학적이고 독창적이에요.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뜬 **상형(象形)**(모양 상, 모양 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단어를 고르는 문제에서 '님'과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단어를 묻는 문제에서 '달, 봄, 별, 꿈'과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음의 기본자인 ‘ㄱ, ㄴ, ㄷ, ㄱ, ㅇ’은 **각 자음이 발음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자음 기본자의 창제 원리: 상형.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모음의 기본자를 만들었다.**’와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고, ‘ㄷ’은 입의 모양을, ‘ㄱ’은 이의 모양을,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조건>을 충족하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에서 ‘**초성은 이의 모양을 본뜬 글자에 획을 한 번 더하여 만든 글자, 종성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글자 - ‘준’**’이 옳은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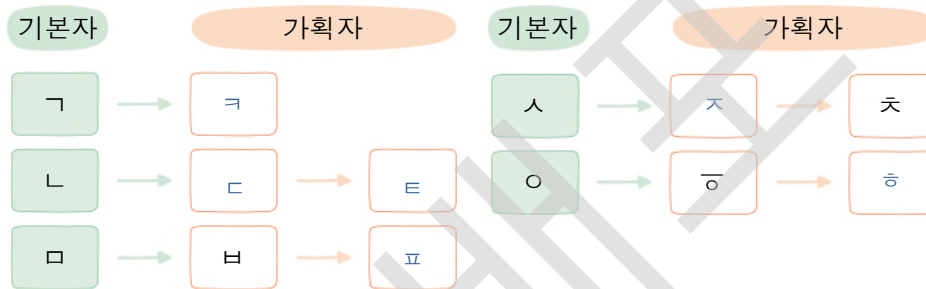
그리고 ‘ㄱ’에서 ‘ㅋ’, ‘ㄷ’에서 ‘ㅌ’과 ‘ㅍ’을 만드는 식으로 **기본자에 획을 더해 가며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어요.**(기본자 외의 자음의 창제 원리: 가획. ‘**소리의 세기가 세어짐에 따라 획을 줄여서 글자를 만들었다.**’와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획(加劃)**(더할 가, 새길 획)의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기본자가 나타내는 자음보다 소리가 더 센 자음을 표현했어요.

▶ 자음의 창제 원리

[확인 2-1] 자음의 기본자가 각각 어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는지 바르게 연결하고, 빈칸을 채워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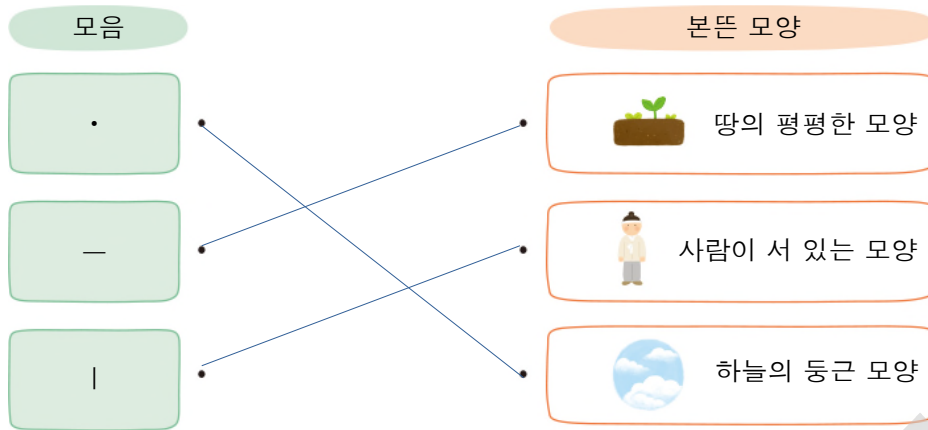
[확인 2-2] 가획의 원리를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자음자를 적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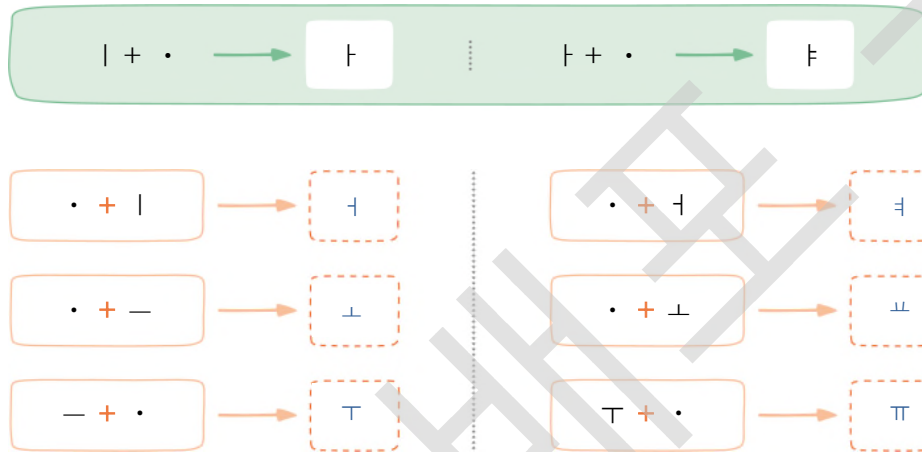
[모음자의 기본자인 ‘·’, ‘—’, ‘|’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모음 기본자의 창제 원리: 상형.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자음의 기본자를 만들었다.’와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오른쪽에 ‘·’를 합쳐 ‘ㅌ’를 만들고, ‘ㅌ’에 다시 ‘·’를 더해 ‘ㅍ’를 만드는 식으로 ‘·’를 결합하며 새로운 모음자를 만들었어요. (기본자 외의 모음의 창제 원리: 합성) 이를 **합성(合成)**(합할 합, 이를 성)의 원리라고 해요.] ([: ‘우유와 주스를 마셨다.’라는 <보기>에 쓰인 모음을 창제 원리에 따라 분류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기본자: —, ㅌ’와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고, ‘초출자: ㅌ, ㅌ’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모음의 창제 원리

[확인 2-3] 모음의 기본자가 무엇을 본떠 만들었는지 바르게 연결해 보자. (모음의 기본자가 무엇을 본떠 만들었는지 <보기>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에서 ‘·’는 하늘, ‘—’는 땅, ‘|’는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 2-4] 합성의 원리를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모음자를 적어 보자. (“—”의 아래에 “·”를 결합하여 만든 글자’가 쓰인 단어의 예시로 ‘숫, 촌, 잣’과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2-1
국어
미래엔(민)

2027 중2-1 국어 미래엔(민) 3(1) 음운 체계와 문자 체계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국어의 음운

개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국어의 음운에는 모음 , 자음 , 소리의 길이 등이 있음.
모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앞고 나오는 소리 • 단모음(10개) : 발음할 때 입술 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 가 변하지 않는 모음 • 이중모음(11개) :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의 모양 이나 혀의 위치 가 변하는 모음
자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 이 발음 기관의 방해 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

3. 국어의 모음 체계

입술 의 모양	• 원순 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함. • 평순 모음: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발음함.
혀의 최고점 앞뒤 위치	• 전설 모음: 입천장의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 에 있음. • 후설 모음: 입천장의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뒤쪽 에 있음.
혀의 높이	• 고모음 :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음. • 중모음 :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중간임. • 저모음 :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낮음.

2. 음성과 음운, 음절

음성	사람이 실제로 발음하는 구체적인 말 소리로, 말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목소리, 속도 등이 달라짐.
음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사람들이 같은 음이라고 생각하는 추상적 소리임. 단어를 구성하는 음운이 하나라도 바뀌면 단어의 뜻이 변하게 됨.
음절	홀로 발음 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모음 은 단독으로 한 음절이 되기도 함. 음절의 종류에는 ‘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 ‘자음+모음+자음’이 있음.

4. 국어의 자음 체계

소리 나는 위치	• 입술소리: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 잇몸소리: 혀끝과 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 센입천장소리: 혓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 여린입천장소리: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 목청소리: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소리 내는 방법	• 파열음: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 마찰음: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 파찰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조금 열고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 비음: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 보내면서 내는 소리
소리의 세기	• 예사소리: 성대 주위 근육에 비교적 힘을 덜 준 상태에서 내는 예사소리 • 된소리: 성대 주위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공기를 꼭 내보내는 소리 • 거센소리: 성대 주위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

5. 문자의 개념과 분류

개념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각적인 기호 체계
분류	• 표의 문자: 하나하나의 글자가 언어의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문자. 중국의 한자가 대표적임. • 표음 문자: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문자. 각 글자가 어떤 소리의 단위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로 구분됨. 한글이 대표적임.

6. 훈민정음의 개념과 창제 정신

개념	• 우리 말소리를 표현하려고 세종 대왕이 창제한 문자 체계 •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창제 정신	• 애민 정신: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김. • 자주 정신: 중국 말을 표기하려고 만든 한자 대신 우리 말소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문자를 새로 만들고자 함. • 실용 정신: 누구나 쉽게 익히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함.

7. 훈민정음 창제 원리

자음자 창제 원리	• 상형: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 기본자(ㄱ, ㄴ, ㄷ, ㄱ, ㄴ, ㄷ)를 만들. • 가획: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해 다른 자음자를 만들.
모음자 창제 원리	• 상형: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모음 기본자(ㅏ, ㅑ, ㅓ)를 만들. • 합성: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들.

TEST 1단계

1. 국어의 음운

개념	단어의 □을 구□해 주는 □리의 가장 작은 단위. 국어의 음운에는 □음, □음, 소리의 □이 등이 있음.
모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고 나오는 소리 • □모음(□□개): 발음할 때 □술의 모양이나 혀의 □치가 변하지 □는 모음 • □중 모음(□□개):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의 □양이나 □의 위치가 □하□ 모음
자음	발음할 때 공기의 □름이 발음 기관의 □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

3. 국어의 모음 체계

□술의 □양	• □순 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함. • □순 모음: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발음함.
혀의 □고□ □뒤 위치	• □설 모음: 입천장의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음. • □설 모음: 입천장의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음.
혀의 □이	• □모음: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음. • □모음: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중간임. • □모음: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낮음.

2. 음성과 음운, 음절

음□	사람이 실제로 발음하는 □체□인 말소리로, 말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목소리, 속도 등이 달라짐.
음□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사람들이 같은 음이라고 생각하는 □상□ 소리임. 단어를 구성하는 음운이 하나라도 바뀌면 단어의 뜻이 변하게 됨.
음□	홀로 □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음은 단독으로 한 음절이 되기도 함. 음절의 종류에는 ‘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 ‘자음+모음+자음’이 있음.

4. 국어의 자음 체계

소리 나는 □치	□술소리: 두 □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몸소리: □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입천장소리: □바□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린입천장소리: 혀의 □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청소리: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소리 내는 □법	□열□: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 마□음: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찰□: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조금 열고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음: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 보내면서 내는 소리
소리의 세□	- 예□소리: 성대 주위 근육에 비교적 힘을 덜 준 상태에서 내는 예사소리 □소리: 성대 주위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공기를 □게 내보내는 소리 □센소리: 성대 주위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

5. 문자의 개념과 분류

개념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각□인 기□ 체계
분류	- 표□ 문자: 하나하나의 글자가 언어의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을 나타내는 문자. 중국의 한자가 대표적임. - 표□ 문자: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문자. 각 글자가 어떤 소리의 단위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절 문자와 □소 문자로 구분됨. 한글이 대표적임.

6. 훈민정음의 개념과 창제 정신

개념	- 우리 말소리를 표현하려고 □종 대왕이 창제한 문자 체계 □성을 가르치는 □른 소리
창제 정신	□민 정신: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김. □주 정신: 중국 말을 표기하려고 만든 한자 대신 우리 말소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문자를 새로 만들고자 함. □용 정신: 누구나 쉽게 익히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함.

7. 훈민정음 창제 원리

자음자 창제 원리	□형: 발음 □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 기본자(□, ㄴ, ㄷ, □, ㅇ)를 만들. □획: 자음 기본자에 □을 더해 다른 자음자를 만들.
모음자 창제 원리	- 상□: 하□, □, □람의 모양을 본떠 모음 기본자(□, ㅡ, ㅣ)를 만들. - 합□: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들.

O / X 문제

【1~10】 다음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우리가 홀로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는 음절이지만,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음운이다. (O / X)

2. 음운은 소리의 뜻을 구별해 주는 단어의 가장 작은 단위로, 사람들이 같은 음이라고 생각하는 추상적 소리이다. (O / X)

3.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로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나뉜다. (O / X)

4.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로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에 따라 분류한다. (O / X)

5. 국어의 단모음은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며 고모음에는 ‘ㅣ, ㅊ, ㅔ, ㅙ’ 등이 있다. (O / X)

6.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눌 수 있으며, 된소리는 성대 주위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공기를 적게 내보내는 소리이다. (O / X)

7.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 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ㄷ, ㅌ, ㅍ’ 등이 있다. (O / X)

8. 중국 말을 표기하려고 만든 한자 대신 우리 말소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문자를 새로 만들고자 한 것은 ‘애민 정신’이다. (O / X)

9.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자음 기본자(ㄱ, ㄴ, ㅁ, ㅂ, ㅅ, ㅇ)를 만들었다. (O / X)

10. 합성의 원리는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것이다. (O / X)

1. O 2. X 3. O 4. X 5. X 6. O 7. X 8. X 9. X 10. O

중2-1
국어
미래엔(민)

2027 중2-1 국어 미래엔(민) 3(1) 음운 체계와 문자 체계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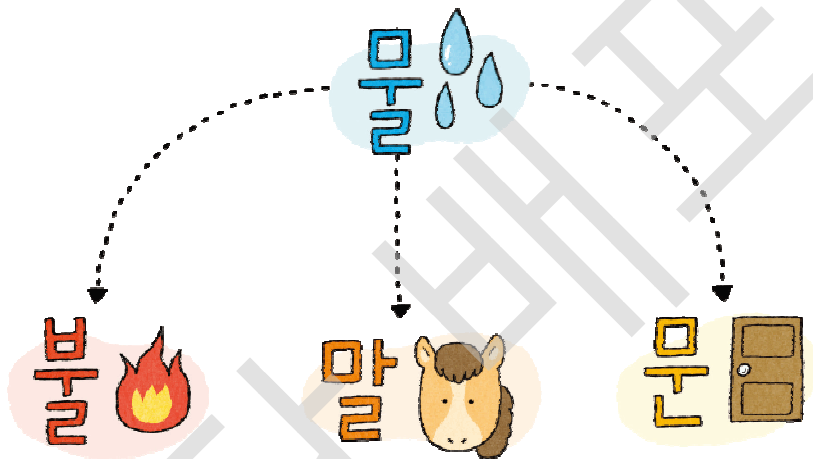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1. 국어의 음운 체계

☞ 음운이란 무엇일까?

[탐구 1]: 단어 ‘물’과 아래 단어들을 짝 지어 발음해 보고,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까닭을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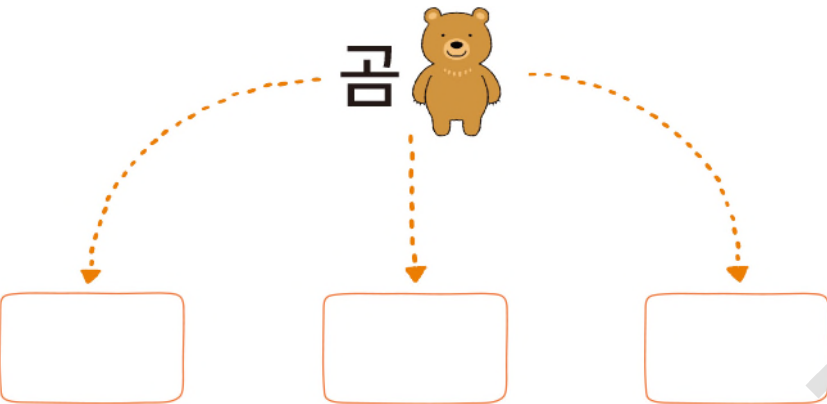


‘물’과 ‘불’은 ‘ㅌ’와 ‘ㄹ’ 소리가 공통되지만 ‘ㅁ’과 ‘ㅂ’ 소리가 달라 그 뜻이 구별돼요. ‘물’과 ‘말’은 ‘ㅌ’와 ‘ㅌ’의 차이 때문에, ‘물’과 ‘문’은 ‘ㄹ’과 ‘ㄴ’의 차이 때문에 뜻이 구별되지요.

‘ㅁ’과 ‘ㅂ’, ‘ㅌ’와 ‘ㅌ’, ‘ㄹ’과 ‘ㄴ’처럼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音韻)이라고 해요. 그리고 음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하여 그 관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 음운 체계예요.

국어의 음운에는 대표적으로 모음과 자음이 있어요. 모음은 ‘ㅏ’, ‘ㅑ’처럼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고, 자음은 ‘ㅁ’, ‘ㅂ’, ‘ㄹ’, ‘ㄴ’처럼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예요.

[확인 1-1] 단어 ‘곰’의 음운을 하나씩 바꾸어 가며 뜻이 다른 단어들을 만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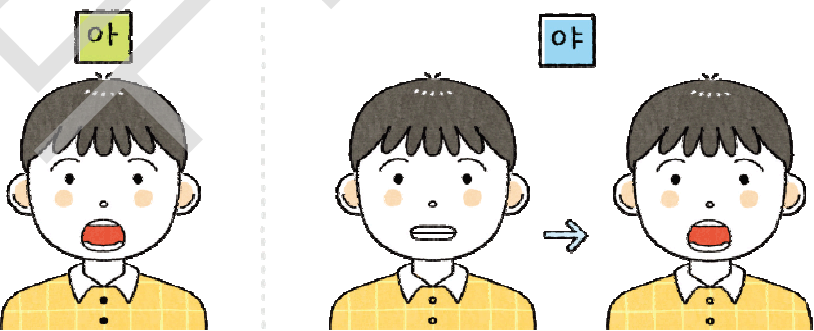
[확인 1-2] 다음 음운을 소리 나는 방식이 같은 것끼리 나누어 보자.

ㅂ, ㄷ, ㅌ, ㅈ, ㅣ, ㅊ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____, _____, _____	→	모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	____, _____, _____	→	

☞ 국어의 모음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탐구 2]: ‘아’와 ‘야’를 발음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지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따라 소리

단모음은 입술의 모양과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 혀의 높이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각각의 기준에 따라 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정리해 볼까요?

* 입술의 모양: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

단모음은 입술의 모양에 따라 ‘ㅍ’나 ‘ㅂ’처럼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원순(圓脣) 모음과 ‘ㅡ’나 ‘ㅣ’처럼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평순(平脣) 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확인 3-1] 다음 단모음을 발음해 보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 나누어 보자.

ㅍ, ㅂ, ㅌ, ㄷ, ㅊ, ㅍ, ㅌ, ㅊ, ㅡ, ㅣ

입술을 둥글게 <u>오므려</u> 발음하는 모음	입술을 <u>오므리지 않고</u> 발음하는 모음
ㅊ, ㅊ, ㅊ, ㅊ	ㅍ, ㅊ, ㅊ, ㅊ, ㅊ, ㅣ
↓	↓
_____모음	_____모음

*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가장 높은 부분, 즉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의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ㅣ’나 ‘ㅊ’, ‘ㅂ’처럼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모음을 전설(前舌) 모음, ‘ㅡ’나 ‘ㅌ’처럼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모음을 후설(後舌) 모음이라고 해요.

[확인 3-2] 짝 지어진 모음의 발음을 비교해 보고,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에 따라 나누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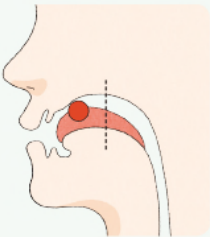
ㅍ, ㅂ

ㅌ, ㄷ

ㅊ, 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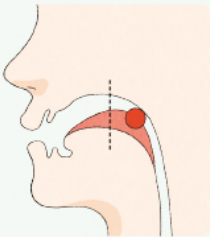
ㅌ, ㅊ

ㅡ, ㅣ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인 모음

_, _, ㅏ, ㅓ, _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인 모음

ㅗ, _, _, _, ㅡ

_____ 모음

_____ 모음

* 혀의 높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높이에 따라 혀의 높이가 높은 고(高)모음, 혀의 높이가 중간인 중(中)모음, 혀의 높이가 낮은 저(低)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ㅡ’를 발음한 상태로 천천히 혀를 내려 보세요. 자연스럽게 ‘ㅓ’와 ‘ㅗ’로 소리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ㅡ’는 고모음, ‘ㅓ’는 중모음, ‘ㅗ’는 저모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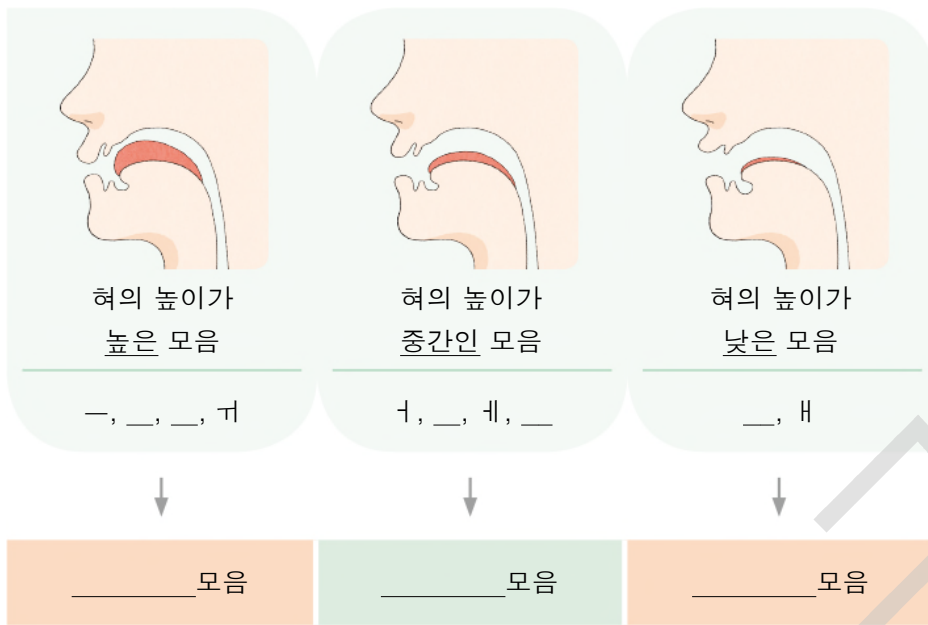
[확인 3-3] 짝 지어진 모음의 발음을 비교해 보고, 혀의 높이에 따라 나누어 보자.

ㅡ, ㅓ, ㅗ

ㅓ, ㅗ

ㅏ, ㅓ, ㅓ

ㅓ, ㅓ



🗨️ 국어의 자음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방해받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탐구 4]: 다음 단어를 발음해 보고,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소리 나는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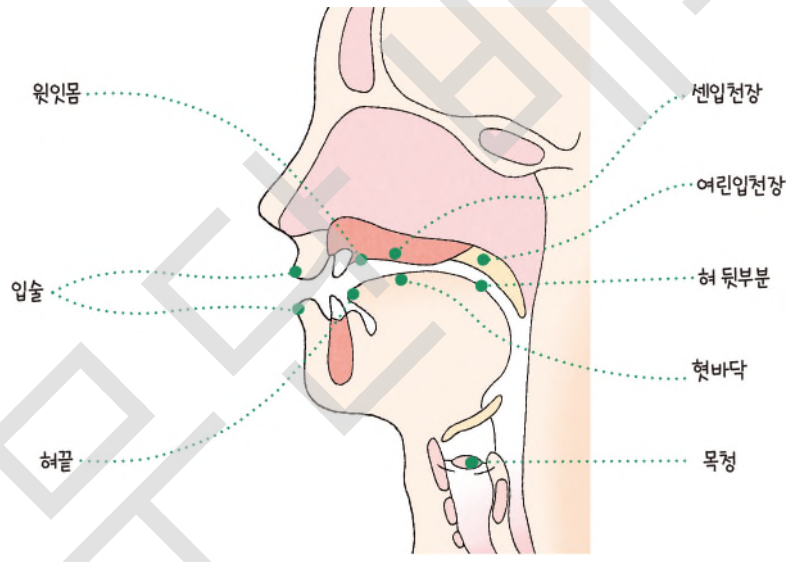
‘뿌리’의 ‘ㅍ’, ‘희망’의 ‘ㅁ’, ‘포도’의 ‘ㅍ’처럼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입술소리라고 하고, ‘포도’의

‘ㄷ’처럼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잇몸소리라고 해요. ‘과자’의 ‘ㅈ’을 발음할 때에는 ‘ㄷ’을 발음할 때보다 혀가 뒤쪽으로 가 입천장에 닿아요. 이때 혀가 닿는 딱딱한 입천장을 ‘센입천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센입천장소리라고 해요.

‘과자’의 ‘ㄱ’을 발음할 때 혀가 목구멍 근처의 입천장을 막는 게 느껴지나요? 이때의 입천장은 센입천장보다 부드러워서 ‘여린입천장’이라고 하고,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여린입천장소리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희망’의 ‘ㅎ’은 입안에서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목청소리라고 해요.

[확인 4] 다음 자음을 발음해 보고, 소리 나는 위치를 찾아 빈칸을 채워 보자.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ㆁ, ㅍ, ㅎ



두 입술 사이	ㅁ, ㅂ, __, __	→	입술소리
혀끝과 윗잇몸 사이	ㄴ, ㄷ, __, __ __, __, __	→	__소리
혓바닥과 센입천장 사이	ㅈ, __, __	→	__소리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	ㄱ, __, __, __	→	__소리
목청 사이	__	→	__소리

[탐구 5]: 다음 자음을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 소리 내는 방법

‘푸드드’의 ‘ㅍ’, ‘ㄷ’처럼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를 파열음(破裂音), ‘스스스’의 ‘ㅅ’처럼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를 마찰음(摩擦音), 그리고 ‘치’의 ‘ㅈ’처럼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조금 열고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를 파찰음(破擦音)이라고 해요.



한편, ‘마음’의 ‘ㅁ’처럼 발음할 때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비음(鼻音), 빨래의 ‘ㄹ’처럼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 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유음(流音)이라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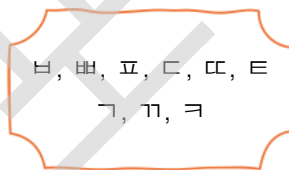
[확인 5-1] 다음 자음을 발음해 보고, 소리 내는 방법을 알맞게 연결해 보자.



(1)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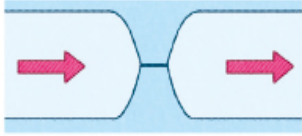


(3)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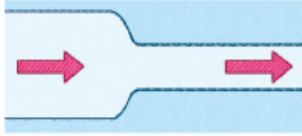
㉢ •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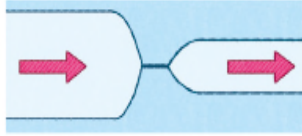
_____음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

_____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조금 열고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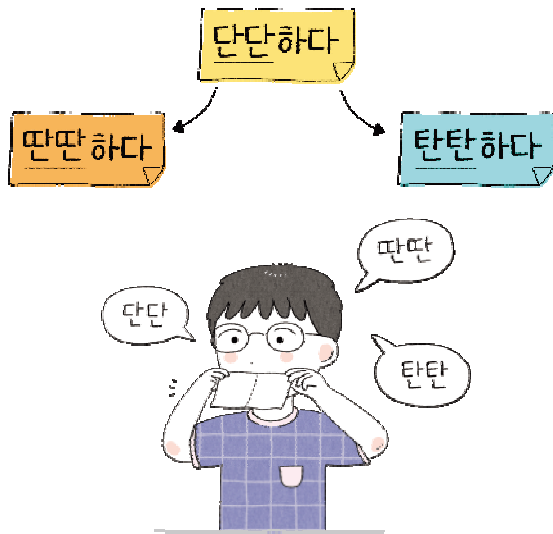
_____음

[확인 5-2] 다음 자음을 발음해 보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나누어 보자.

ㄴ, ㄹ, ㅁ, ㅇ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ㄴ, __, __	→	_____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 보내면서 내는 소리	—	→	_____음

[탐구 6]: 다음 단어의 밑줄 친 부분을 발음해 보고, ‘ㄷ’, ‘ㄸ’, ‘ㅌ’을 발음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다시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단단’의 ‘ㄷ’처럼 성대 주위 근육에 비교적 힘을 덜 준 상태에서 내는 소리를 예사소리, ‘뽐뽐’의 ‘ㄸ’처럼 성대 주위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공기를 적게 내보내는 소리를 된소리, ‘탄탄’의 ‘ㅌ’처럼 성대 주위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를 거센소리라고 해요.

[확인 6] 짝 지어진 자음을 발음해 보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누어 보자.

- ㄷ, ㄸ, ㅌ
- ㄱ, ㄲ, ㅋ
- ㅂ, ㅃ, ㅍ
- ㄴ, ㄴ
- ㅈ, ㅉ, ㅊ

성대 주위 근육에 비교적 힘을 덜 준 상태에서 내는 소리	ㄷ, __, __, __ __, __	→	__소리
성대 주위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공기를 적게 내보내는 소리	ㄸ, __, __, __ __, __	→	__소리
성대 주위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	ㅌ, __, __, __ __, __	→	__소리

핵심 정리

목차

배경

문제

핵심

지문

2. 국어의 문자 체계

사람들 사이에 약속된 기호가 없었을 때에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웠어요. 또 소리는 말하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정보를 오래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도 어려웠지요. 그래서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각적인 기호 체계인 ‘문자’가 만들어졌어요.

☞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탐구 1]: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자.



우리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 말소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체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자를 빌려 사용하기도 했는데, 한자는 우리말에 맞지 않는 문자 체계인 데다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불편했어요.

세종 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중국 말을 표기하려고 만든 한자 대신 우리 말소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또 누구나 쉽게 익히고 편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답니다. 이러한 창제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세종 대왕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였어요.

[확인 1]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까닭과 창제 정신을 알맞게 연결해 보자.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	•	자주 정신
중국 말을 표기하려고 만든 한자 대신 우리 말소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문자가 필요하다.	•	•	실용 정신
누구나 쉽게 익히고 편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	•	애민 정신

1.35 한글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탐구 2]: 세종 대왕이 한글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를 만든 원리를 생각해 보자.

◦ 자음의 기본자



◦ 모음의 기본자



세종 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방식은 매우 과학적이고 독창적이에요.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뜬 상형(象形)의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자음의 기본자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은 각 자음이 발음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ㄱ’은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고, ‘ㄷ’은 입의 모양을, ‘ㅅ’은 이의 모양을,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ㄱ’에서 ‘ㅋ’, ‘ㄷ’에서 ‘ㅌ’과 ‘ㅍ’을 만드는 식으로 기본자에 획을 더해 가며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는 가획(加劃)의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기본자가 나타내는 자음보다 소리가 더 센 자음을 표현했어요.

[확인 2-1] 자음의 기본자가 각각 어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는지 빠르게 연결하고, 빈칸을 채워 보자.

ㄱ

ㄴ

ㄹ

ㅅ

ㅇ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____이/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____의
모양

이의 모양

____의
모양

[확인 2-2] 가획의 원리를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자음자를 적어 보자.

기본자

가획자

기본자

가획자

ㄱ

→

ㄴ

→

→

ㄹ

→

ㄹ

→

ㅅ

→

→

ㅈ

ㅇ

→

ㅇ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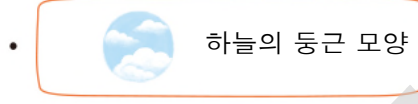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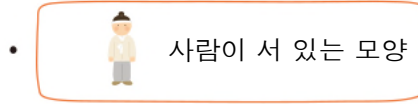
모음자의 기본자인 ‘ㅏ’, ‘ㅑ’, ‘ㅓ’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그리고 ‘ㅓ’ 오른쪽에 ‘ㅕ’를 합쳐 ‘ㅗ’를 만들고, ‘ㅗ’에 다시 ‘ㅕ’를 더해 ‘ㅛ’를 만드는 식으로 ‘ㅕ’를 결합하며 새로운 모음자를 만들었어요. 이를 합성(合成)의 원리라고 해요.

[확인 2-3] 모음의 기본자가 무엇을 본떠 만들었는지 바르게 연결해 보자.

모음



본뜬 모양



[확인 2-4] 합성의 원리를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모음자를 적어 보자.

